

SF영화에 나타난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연구

-영화 <쥬피터 어센딩>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dea of Zecharia Sitchin Shown in SF Films Contents

-Focusing on a Film <Jupiter Ascending>-

김성훈

한서대학교 영화영상학과

Seong-Hoon Kim(artkim@hanseo.ac.kr)

요약

<쥬피터 어센딩>은 앞선 SF영화와는 사뭇 다른 철학적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그 사상은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을 차용한 것이다. 시친은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지구 및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 인류는 이 행성의 지적생명체(인간은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고 한다)가 인류를 창조하고 고대의 문명도 그들이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이 학계와 종교계에 비상한 관심 속에 있고 그의 사상들이 현재 발굴되어지고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구상의 미스터리들을 해결하는 쾌거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SF영화라는 예술장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쥬피터 어센딩>의 분석을 진행 하여 시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SF영화의 두 요소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고 시친과 SF영화<쥬피터 어센딩>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교차영역을 중심으로 시친의 사상을 찾아 분석 한다.

■ 중심어 : | 쥬피터 어센딩 | 제카리아 시친 | 워쇼스키 남매 | 신과 인간관계 | 인간 창조 |

Abstract

<Jupiter Ascending> involves philosophical perspectives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SF movies. This perspective was derived from that of Zecharia Sitchin, in which he tells the history of the earth and mankind from a very unique perspective. He claimed that the intelligent beings (according to Sitchin, we called them the gods) on this planet created mankind and brought them ancient civiliz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upiter Ascending> under the determination that a comparative analysis can be made between SF movies and an art genre, in the outlook that Sitchin's perspectives are under extraordinary attention of religious and academic circles and are assisting in solving many mysteries on earth with currently excavated archaeological evidences, to identify the factors of consensus between the message Sitchin wanted to convey and SF movies and find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Sitchin in the cross-section between Sitchin and the narratives in <Jupiter Ascending>.

■ keyword : | Jupiter Ascending | Zecharia Sitchin | The Wochowskis |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 Creation of Adam |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서대학교 교내 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8월 03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14일

교신저자 : 김성훈, e-mail : artkim@hanseo.ac.kr

I. 서론

SF(science fiction) 영화는 과학기술이라는 소재와 공상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통해 관객을 지구상의 상식과는 다른 시공간으로 초대하는 장르다[1]. 이 장르는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나 쥘 베른(Jules Verne)의 소설들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또 다른 주장은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근동지방에서 탄생된 <길가메쉬의 서사시>(The Epic Gilgamesh)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설명한다[2]. 또한 SF는 미래를 앞당겨 구상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장르이기도 하다[3].

황혜진, 이승환(2005)은 “SF영화 <매트릭스>에 나타난 문화적 혼성성”에서 <매트릭스> 시리즈의 서사가 제시하는 혼성적 특징을 서사와 인물, 함축적 의미의 저장고로 존재하는 종교적/철학적 질문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최영진(2008)은 미국적 신화의 관점에서 본 SF영화의 관객성을 <스타워즈>와 <심슨가족>을 우주비행사 호머를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최병근(2010)은 SF장르에서 공간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영화<디스트릭트 9>에서 공간 제한의 특수한 표현들과 실제하는 공간 선택이 장르적인 특수성과의 융합에 관해 말했다.

이다은(2015)은 SF 영화 속 인간과 피조물이 사유하는 방식에서 가부장적 사회에 반기를 드는 수동적인 여성 사이보그와 피조물도 느끼는 부조리를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분석했고, 유토피아의 낭만적 기대 이면에 숨겨진 디스토피아적 미래관을 분석했다.

김은경(2015)은 SF영화에 나타난 시간초월 양상을 <소스코드>, <옛지 오브 투모로우>, <인스텔라>를 중심으로 시대정신을 계승하며 각기 다른 과학적 모티프와 대안을 제시했다.

배상준, 정수완(2017)은 영화<그래비티>를 통해 사실주의적 SF영화를 형식주의적으로 해석했다.

<쥬피터 어센딩>을 연출한 워쇼스키 형제는 형제에서 남매로, 지금은 자매로 된 감독들이다. 이들의 행보는 할리우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들의 상상력은 이미 영화 <매트릭스>(1999)

를 통하여 전 세계에 많은 영화 팬들의 가슴에 강한 울림을 주었다. 현실에서 그들의 트랜스 젠더의 행보만큼이나 영화에서의 그들의 상상력과 영상미는 엄청난 티켓 파워로 연결되어 진다. <매트릭스>에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인류를 상상 이상의 영상으로 표현했고, <클라우드 아틀라스>(2012)에서는 6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6개 스토리를 하나의 줄거리로 만든 영화로 서로 다른 시대만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하지만 이 약육강식의 세계는 세상의 진실이 아니며, 세상에 어둠을 주려 했던 약육강식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의 진실로 남아 하늘과 땅을 비춘다는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이다.

<쥬피터 어센딩>(2015)은 워쇼스키 형제가 남매 때 만든 영화이다.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관객들로 부터도 호된 질타를 받은 영화이다. 대다수의 의견은 화려한 CG로 거대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에 비하여 철학적인 고민이 적어 보이며 이야기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쥬피터 어센딩>은 워쇼스키 남매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영화 속에 나타난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앞선 영화와는 사뭇 다른 철학적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사상은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친은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지구 및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 하고 있다. 기존의 역사는 빅뱅에 의해서든 뒤에 의해서든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고, 순차적으로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형성되고, 그 태양계의 일원인 지구에 원시적인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차츰 진화해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 인간도 처음에는 원숭이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차츰 나무에서 내려오고, 직립 보행을 하고, 사회를 형성하고, 점차 사회의 단위가 커지고, 이에 따라 각종 문화가 생기고, 그렇게 진행되어오다가 현재와 같은 ‘문명사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시친은 우주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태양계의 형성에서부터 달라진다. 형성 초기 태양계에 큰 별 하나가 ‘난입’해 행성 하나와

충돌하고 그 행성이 쪼개져 지구가 되고 난입한 별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긴 공전 주기를 갖는 태양의 행성으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우리 인류는 이 행성의 지적생명체(인간은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고 한다.)가 인류를 창조하고 고대의 문명도 그들이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4].

시친은 수메르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근동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고대어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고고학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수메르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의 해석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는데, 태양계의 알려지지 않은 12번째 행성으로부터 지구로 문명이 이식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학계와 종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후 외계 문명의 지구 이식을 고고학적 사실과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하는 그의 글들은 학계나 종교계 모두에서 30년 가까이 인정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으며, 그의 책들은 ‘SF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허구’라는 평가와 ‘모든 의문을 일거에 해소하는 역사 이론’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5].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이 학계와 종교계에 비상한 관심 속에 있고 그의 사상들이 현재 발굴되어지고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구상의 미스터리들을 해결하는 쫓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SF영화라는 예술장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슈피터 어센딩>의 분석을 진행하여 시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SF영화의 두 요소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고자 한다. 또한 시친과 SF영화<슈피터 어센딩>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교차영역을 중심으로 시친의 사상을 찾아 분석하고자 한다.

II.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

1. 제카리아 시친(1920년 7월 11일 ~ 2010년 10월 9일)[6]

제카리아 시친 (Zecharia Sitchin)은 러시아에서 태어

나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난 유대계 미국인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동안 고대 히브리어와 셈어 등을 익혔고, 구약과 근동의 역사 및 고고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 런던 정경대(LSE)에서 공부한 후 이스라엘에서 한동안 저널리스트 및 편집자로 활동했으며, 뉴욕에 살면서 저술과 강연 활동에 전념하다가 2010년 10월 9일 타계했다. 수메르어 및 아카드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근동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고대어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고고학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고대 우주비행사설에 근거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고 고대 수메르 문명이 해양성 너머에 있는 니비루(Nibiru)라 불리는 행성의 외계종족 아누나키(Anunnaki)²에 의해 전파되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7]. 그는 이 가상의 행성 니비루가 태양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타원궤도상에 존재하며, 수메르 신화가 이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친의 학설은 과학자들을 비롯한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유사과학, 또는 유사역사학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지구연대기’ 시리즈는 세계 각국에서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도 제작되었다. 시친 자신은 새로운 천체가 발견되거나 외계 문명에 대한 확인할 수 없는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각국의 언론과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자문을 구하는, 다소 특이한 고고학자로 평가받았다.

2. 지구연대기와 외계지적설계론

제카리아 시친의 지구연대기 시리즈<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 <엘도라도, 혹은 사라진 신의 왕국들>, <시간이 멈추는 날>이 우리 국내에 번역되어 알려 졌다. 그의 지구연대기 시리즈는 총 7권으로 이뤄졌지만 국내에는 5권과 6권이 생략된 채 마지막 7권이 5권으로 마무리 되었다. 5권과 6권이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이유는 종교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여 출판을

1. 태양계 12번째 행성으로 긴 타원형 궤도를 돌며 지구에 3,600년에 한 번씩 접근하는 행성.

2. 하늘에서 내려온자, 엘로힘으로도 불리우는 니비루 행성의 전사이자 영웅들. 하급신으로 불리운다.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신의 전지전능하심이 심히 오염, 훼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 권이 없다 한다면 시친의 사상을 정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현재의 인간(호모 사피엔스)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의 예외라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직립보행을 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며, 도구를 쓰고 농경사회를 이루고, 문자를 만들어 종교와 예술이라는 고차원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대답은 ‘단계적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친은 실제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놓고 보면 ‘단계적 발전’은 전혀 터무니없음을 지적한다.

시친은 성서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일종의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되던 많은 구절들이 고고학적 발굴결과로 인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성서의 내용이 사실(史實)이라면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 없이 구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의 근원은 수메르 문명으로 이어진다.

수메르가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445,000년 전에 태양계의 12번째 행성 니비루에서 엔키³라는 신이 아누나키(하급신)들을 이끌고 지구로 내려와 메소포타미아 남쪽 에리두(Eridu)에 지구정착 기지를 건설하고 정착하는데 있다. 그들이 지구에 내려온 이유는 니비루 행성 대기에 문제가 생겨 그 처방으로 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내려 온 것이다. 처음에는 아누나키들이 금을 채굴했지만 고된 노동에 그들이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켜 그 대안으로 노동을 대신할 최초의 인간 아다파⁴(Adapa 아다마 Adama 아담)가 탄생된다.

엔키는 님하르⁵의 도움으로 생식 능력이 없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생식능력을 갖춘 호모 사피엔스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의 핵심요지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다. 신들의 영생을 부러워한 인간들

이 신들의 낙원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시간대로 보자면 길가메시가 걸었던 길을 이집트 파라오와 알렉산더 대왕, 페르난도 2세, 십자군 원정대가 따라갔다.

성서 구약은 하늘에 이르는 계단,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사다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8]. 이런 계단과 사다리를 통해, 정확한 정체를 알기 어려운 비행체를 통해 신과 천사들은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갔고, 어떤 인간들은 이 계단이나 사다리를 통해 신이 거처하는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수메르의 점토판은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12번째 행성의 우주인(신)들이 지구에 건설한 우주선 착륙장과 발사 기지에 대한 내용들이 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테로 기록한 것이다.

시친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신들이 지상에 세운 인류 최초의 낙원 킬문(TIL.MUN)과 우주 정거장을 찾기 위해 고대에서부터 수많은 인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신화와 전설로 변형된 수메르의 기록을 따라 에덴을 찾아 헤맸다는 것이다.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은 지구가 오래전부터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인간은 아누나키(신)의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졌다고 말한다. 신들은 12번째 행성 니비루에서 지구에 내려온 것인데 이미 니비루에서의 대권 싸움에서 패한 신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대권을 놓고 뒤늦게 온 신들과 싸우면서 인간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집트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그리스 신들의 싸움, 인도 신들의 전쟁, 두 차례에 걸친 피라미드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은 4,000년 전 시나이에서 마르둑(Marduk)⁶의 아들 나부(Nabu)⁷가 우주공항을 점령하려고 가나안 추종자들을 집결시키자 고위 아누나키 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닌우르타⁸의 핵 공격으로 시나이 우주공항과 통제실, 산과 평야, 요르단 평야가 사라지고 사해가 범람하게 된다. 네르갈⁹의 핵공격으로

3 니비루 최고의 신 아누의 큰아들, 큰아들이지만 적통 계승자가 아니다. 니비루 최고의 과학자.

4 인류 최초의 인간, 생식능력이 없는 호모 사피엔스.

5 니비루 최고의 신 아누의 배다른 여자형제 신, 의학에 정통한 신.

6 엔키의 적통 큰아들

7 엔키의 손자, 마르둑의 아들.

8 엔릴의 아들로 적통계승권자 신.

9 엔키의 큰아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여 가나안의 도시들이 파괴된다.

구약성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설명하며 소돔에서 도망치던 롯의 아내는 경고를 무시하다 '소금기둥'으로 변했다[9]. 그러나 수메르어의 니무르(Nimur)는 '소금'과 '증기'의 두 의미에서 파생되었다. 사해가 히브리어로 소금바다이기 때문에 소금기둥이라고 잘못 해석했지만 롯의 아내는 '증기기둥'이 된 것이다[10].

<엘도라도, 혹은 사라진 신의 왕국들>의 요지는 니비루 행성에서 지구로 온 신들이 근동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도 갔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 신들의 목적은 역시 금과 구리, 그리고 구리와 섞으면 청동이 되는 주석 같은 광물 자원을 찾고 채굴하기 위해서였다.

기성학자들은 선사시대에 초기 아메리카 정착자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남쪽으로 왔음이 확인 됐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친은 메소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민족들의 전승과 신화들에 근거해 파악한 것인데 이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기존 학자들이 상상속의 신화라고 일축했던 인류의 선사 설화들 속에 사실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역사 시대에 대해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신대륙과 구대륙 사이의 연관 관계들과 신대륙에 문명을 가져다 준 인물이 신이라고 시친은 설명하고 있다. 그 신들은 남아메리카에서 위라코차(Wiragucha, 비라코차)로 불렸고, 수메르에서는 아다드(Adad), 히타이트에서는 타르훈(Tarhun, 테슈Teshub)으로 불리었다.

메소아메리카의 '켓살코와틀(Quetzalcohuatl)'은 수메르에서 닝기쉬지다(Ningishzida), 이집트에서는 토트(Thoth) 신이다.

<시간이 멈추는 날>은 시친의 지구연대기 완결편이다. 이 마지막 책에서 시친은 인류의 영원한 관심사인 종말론에 도전한다. 그는 종말론 이야기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설명'으로 이해시키려 한다. 아이러니는 그 자료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원인 신구약성서라는 점이다.

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가 왜 서기전 21세

기와 닮아 있는지 의문을 표한다. 서기전 21세기에는 인류는 신들의 야망과 경쟁이 빚어낸 핵전쟁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멸망을 맞이한 바 있다. 따라서 서기 21세가 되자마자 수메르 문명 지역인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예사로이 볼 수 없다고 얘기한다.

시친은 완결 편에서 성서와 수메르 점토판은 물론이고 각종 고대 유물들을 통해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고 과거가 미래이고 인류와 지구행성은 미리 정해진 순환적인 '하늘의 시간'에 지배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새 증거를 제시하며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또한 그는 서기전 21세기의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핵무기 사용 이후의 지구사건들을 조망하며 나스카 선묘화 같은 고대의 수수께끼들이나 십자가·물고기·성배의 기원과 의미를 해명하고,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사건들과 다빈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은 실마리들을 정리한다. 게다가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데 대한 우주와 관련된 이유들을 설명한다. 또한 아이작 뉴턴의 발자취를 따라 구약성서<다니엘>과 신약성서<요한 계시록> 등에 나오는 시간에 관한 암호와 '주님의 날' 및 '종말의 날' 예언에 관해서도 해독한다. 이처럼 시친은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역사를 이용해 '종말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시친의 지구연대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태양계의 12번째 행성 니비루에서 온 우주인들이 지구에 내려와 인간을 창조하고 인류 역사의 초기를 이끌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나일 강과 인더스 강 문명 등 세계 3대 문명 발상지에서 지구 문명을 건설했다.

우주인들의 행성인 니비루가 지구에 근접했던 기원전 11,000년 무렵에 행성의 인력으로 인하여 성서에서 말하는 대홍수가 일어났고, 그 후 그 행성이 지구에 근접할 때 마다 지구의 문명이 한 단계 진화를 하는데 그 공전 주기는 3,600년으로 니비루 행성에서는 1Shar라 한다.

수메르 점토판 기록에 의하면 신들의 통치기간이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을 채워하는 이유는 신들의 1년이 인간에게는 3,600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들도 생명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신들의 2세대와 3세대들은 지구의 짧은 공전주기와 환경으로 인하여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

수메르 문명이전에는 신들이 지구를 분할하여 직접 통치를 했고 인간에게 통치를 위임했을 때에도 신들이 통치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 그러나 신들의 위계질서가 일사 분란한 단일체가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투쟁하는 관계를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신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에 인간들이 참여했다.

신들은 금을 채굴했던 곳이 남아프리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메소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도 채굴을 했고 그곳에서 인간들에게 문명을 전해주고 일꾼으로도 사용했다. 고대 인간이 아무 쓸모없는 금을 좋아했던 이유는 신들이 금을 좋아했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예물로 바치고 싶은 욕망의 발로에서였다. 이상의 이야기의 결론은 지구행성과 인류는 외계지적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III. 영화 <주피터 어센딩>의 분석

1. 영화 <주피터 어센딩>

영화 <주피터 어센딩>을 연출한 워쇼스키 남매 감독들은 다소 특이한 행보를 걷는 감독들이다. 유태계 미국인인 이들은 형제에서 남매로, 지금은 둘 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 자매가 되었다. 이들의 행보만큼이나 이들의 영화는 전 세계 영화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감독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양덕후¹⁰로 유명한 두 사람은 실베스타 스텔론 주연 영화 <어썬신>(1995)의 각본을 쓰며 할리우드에 데뷔했다. 이들의 감독 데뷔작은 <바운드>(1996)로 영화계에 호평을 받았다.

그 후로 3년의 제작 과정을 거쳐 개봉한 <매트릭스>(1999)는 상상을 초월하는 설정, 파격적이고 경이로운 액션, 강렬한 남자의 힘을 느끼게 하는 연출이 조합되어 R등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심의 대상이던

Y2K¹¹ 문제와 결부되어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성공적인 매트릭스 시리즈를 끝내고 만든 <브이 포 벤데타>(2006)는 5,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전 세계에서 1억 3,2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흥행에 성공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만든 <스피드 레이서>(2008), <닌자 어썬신>(2009), <클라우드 아틀라스>(2012)까지 흥행에 실패했다. <주피터 어센딩>(2015)은 설상가상으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외면 받았고 앞으로 행보에 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나마 위로를 삼는 것은 넷플릭스 드라마 <센스 8>(2015)이 찬사를 받아서 희망이 보이긴 했으나 시즌2로 조기 종영 되면서 영화와 드라마 활동에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특히 워쇼스키 남매가 만든 <주피터 어센딩>은 영화 중반까지 그들 특유의 연출 방식인 설명 안 해주고 설정을 늘어놓는 진행에 많은 관객들이 불만을 쏟아 놓았다. 이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유명사를 설명 없이 많이 사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영화 후반부에 밝혀지는 전말이 다소 허무하게 납치당한 여주인공을 목숨 걸고 구출하는 이야기 전개에 다소 식상하다는 분위기였다.

언론인 우태영은 미디어펜 칼럼에서 <트와일라잇>, <트랜스포머>, <터미네이터>, <콘택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판타스틱 4>, <사인>, <그래비티>의 영화 장면을 들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는 없고 모두 남의 영화에서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혹평을 했다.

유일한 칭찬은 CG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만든 영화이고 소녀취향의 로맨스 감정을 풍성히 담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주피터 어센딩>이 힐난과 혹평만 받아야 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업영화가 관객들로부터 외면 받고 흥행에 실패했다고 영화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평론가 조재휘는 2015년 2월 5일에 그의 face book에

11 컴퓨터가 연도표시의 마지막 2자리만을 인식하여 1900년 1월 1일과 2000년 1월 1일을 같은 날로 인식하게 되므로 예상되는 컴퓨터 장애로 인한 대혼란을 말한다. 이 문제가 2000년부터 발생하므로 밀레니엄버그라고 부르게 되었다.(year two kilo problem)

10 양키 오타쿠(Yankee+オタク)의 우리말 변형의 준말. 흔히, 높은 수준으로 코스튬플레이를 하는 서양인을 이를 때 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주피터 어센딩(2015)>이 많은 결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비평적 반응과 같이 혹평 일색으로 저주받을 영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결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작품이 <매트릭스 리로디드(2003)>부터 <클라우드 아틀라스(2012)>에 이르기까지 위쇼스키 남매가 추구해온 철학적 구도와 만화적 스타일의 발전 선상에 놓여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치켜세울 작품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작품에서 위쇼스키 형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숙고만큼은 필요합니다. 위쇼스키 형제는 분명 장르의 아이콘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면서 영화를 만들지만, 정작 그들이 목적으로 삼는 지향점은 장르의 완성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들리 스콧의 <엑소더스 - 신들과 왕들(2014)>이 받은 것 못지않은 물이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작품은 분명 재조명받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특히 그의 글 중에 ‘그 동안 추구해온 철학적 구도와 만화적 스타일의 발전 선상에 놓여있다는 말이다. 위쇼스키 남매는 <주피터 어센딩>에 그들만의 새로운 관점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 되어 진다.

SF영화는 그동안 동화적인 상상과 허구로 가득 찬 영화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과학적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만듦으로 미래 인류에 대한 진단과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상상력의 선구자 역할들을 해왔음에도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과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좀 더 진지한 철학적 사고를 가진 SF영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왔다. 그 영화가 바로 <주피터 어센딩> 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2. 영화 <주피터 어센딩>의 줄거리[11]

영화 <주피터 어센딩>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샤펜테부르크의 한 대학에서 천체물리학을 가르치는 영국외교관의 아들 맥스 밀리언스 존스 아빠와 같은 대학 응용 수학을 가르치는 엄마를 둔 주피터는 태어나기도 전에 강도들의 침입으로 아빠가 사망한다. 니노 이모와 미국행을 하던 엄마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주피터

를 출산한다.

주피터는 가난한 이민자들의 전형인 청소부로 일하면서 시카고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날 캐서린의 집에서 이상한 사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천체망원경을 구입하고 싶은 주피터에게 난자를 팔 것을 권유하는 사촌의 꼬임에 넘어가 인공수정 센터를 찾은 주피터는 상황이 이상함을 알고 그만 두려 하나 이미 변신을 하고 주피터를 죽이기 위해 내려온 지구소유권자 발렘의 수하 키퍼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늑대의 유전자가 섞인 라이칸탄트 케인에 의해 구출된다.

주피터는 케인을 통해 우주 최대가문인 아브라삭스 가문의 집안싸움에 자신이 말려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케인은 주피터를 데리고 옛 상사의 집을 방문한다. 거기서 주피터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타어를 통해 인류가 처음 생겨난 곳은 오로우스 행성이며 인간은 대 확장 시대에 지구에 10 만 년 전 아브라삭스 가문에 의해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잠시 후 주피터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키퍼들과 전투가 벌어지고 헌터들이 가세한 싸움에서 헌터들이 주피터를 우주선에 싣고 아브라삭스 가문의 2인자 칼라크의 행성에 도착해 리젠X라 불리는 생명연장 액기스를 받고 주피터를 넘겨준다.

그곳에서 자신이 아브라삭스 가문의 어머니의 환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자신이 지구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소유권을 획득한다. 이 지구 소유권을 뺏고 싶은 아브라삭스 가문의 셋째가 주피터를 초대해 케인의 생명을 담보로 결혼을 요구한다. 결혼 후 주피터를 죽이고 지구를 차지할 속셈이다.

한편 아브라삭스 가문의 일인자인 발렘은 주피터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자 시카고에 있는 주피터의 가족을 납치한 후 주피터를 압박한다. 주피터는 생명연장 액기스가 인간 100명에서 추출해야 한 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자신과 가족이 죽더라도 지구 전체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신념으로 강하게 거절한다. 주피터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 순간 위험을 무릅 쓰고 목적으로 진입한 케인에 의해 또 한 번 구출된다. 화려한 아브라삭스 가문은 무너지고 지구에 새로운 주인인

슈피터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연인 케인과 함께 지구를 날아오른다.

3. 영화 <슈피터 어센딩>에 나타난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

이제 <슈피터 어센딩>에 나타난 철학적 사고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철학적 사고는 제카리아 시친의 사고를 차용했다고 보여 진다. SF영화는 일반적으로 관객들의 눈에 익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선보이려고 노력한다. 우주공간에 대한 무한한 확장성을 이용하여 관객들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태양계를 배경으로 이야기 전체를 풀어냈다. 종교계와 학계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인간 기원의 문제와 신의 존재 문제에 관해 수메르 점토판과 구약성서를 이용해 그 해답을 내놓은 시친의 사상이 깃든 태양계를 배경으로 한 것은 워쇼스키 남매들이 시친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앞서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의 주된 내용이 신들의 출현과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 했었다.

신에 대한 존재는 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사람들을 신들로 받들었다는 기록들이 수메르 점토판과 성서에 엘로힘(Elohim), 즉 하늘에서 온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고대인들이 바라보던 사실과 신들이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수메르 점토판의 시친 해석을 살펴보면 지구궤도를 3,600년 마다 한 번씩 공전하는 니비루 행성의 인물들이 지구를 방문했는데 주요 대표 방문자가 엔키(Enki), 엔릴(Enlil), 닌하르삭(Ninharsag), 이 세 신들이다.

엔키는 니비루 최고의 신 아누(Anu)의 큰아들로 지구를 두 번째로 방문한다. 첫 번째 방문자는 니비루 행성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알라우(Alau)신이였다. 엔릴은 엔키의 배다른 형제로 니비루 행성의 적통 계승자이다. 그는 지구로 내려와 에딘(Edin)과 우주공간의 지휘권을 갖게 되고 엔키는 남 아프리카 금 채굴장 압주로 가게 된다. 닌하르삭은 엔키와 엔릴의 배다른 남매로 니비루의 최고 의학자이자 생물학자로 지구에 내

려와 엔키와 함께 인간을 유전조작으로 창조한 신이다. 이 신들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며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신들이다.

영화<슈피터 어센딩>에서는 아브라삭스 가문의 세 인물 발렘, 칼라크, 타이터스로 등장한다. 이 인물들이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태양계 최고의 실력자로 치환되어져 있다. 이들은 사람의 씨도 뿌리고, 하이브리드도 만들어 쓰고, 중력도 조절하고, 물질도 자율적으로 조립, 변형시키면서도 시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채 인간의 기억마저도 조절하는 살아있는 신으로 존재한다. 아브라삭스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아브라삭스(Abrasax, 그리스어ΑΒΡΑΣΑΞ)[12][13]는 7개의 그리스 문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문자들은 그 노시즘파의 우주론에서 고전시대 행성들인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나타낸다. 아브라삭스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칼 구스타프 융은 모든 대립물(all opposites)이 한 존재(one Being)속으로 결합된 신이 아브라삭스이며 아브라삭스는 그리스도교의 신과 사탄(Christian God and Devil)의 켈셋트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a God higher)이라고 하였고, 초기 기독교 교부로서 기원 2세기에 살았던 이레나 이우스(Irenaeus 140~203)가 기술하는 체계에서는 세상의 탄생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여러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그 중 마지막 존재가 365개의 하늘을 만들었고 제일 마지막에 존재하는 즉 육안에 보이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365개 하늘들의 “지배자(The Ruler)”가 아브라삭스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아브라삭스는 365개의 숫자들을 그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아브라삭스라는 단어를 이루는 그리스 문자들의 해당 숫자 값을 모두 더하면 365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브라삭스 가문의 인물들은 태초부터 태양계에 존재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탄생은 영화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도 시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시친은 우주의 탄생과 신의 탄생은 알 수 없지만 지구에 지적생명체가 내려와 인간을 창조하고 인류의 문명

을 열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창조된 인간들은 신들의 하수인으로 살면서 신들의 행적과 기행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수메르 점토판이고 성서인 것이다. <주피터 어센딩>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과 핵심인물이 시친의 지구연대기 1편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시친이<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신들이 누리는 영생에 관한 문제이다. 많은 인물들이 생명의 샘 혹은 영원한 젊음의 샘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었는데, 과거에 그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였다[14].

성서 창세기는 ‘에녹(Enoch)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지상에서 사라졌다고만 기록하면서 에녹의 나이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15]. 이 의미는 신들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인물은 ‘나의 신은 야훼(Tahweh)’라는 뜻을 지닌 엘리야(Eli-Yah) 선지자이며 그는 구약의 선지자로,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왕국이 아합(Ahab)과 아하시야(Ahaziah)의 지배하에 있을 때 실제로 활동한 인물이다[16]. 이 인물도 하늘에서 불 병거와 불 말이 나타나 제자 엘리사를 떼어 놓고 또 다른 제자 50명이 보는 앞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길가메시는 여신 니순과 제사장 쿨랍을 부모로 둔 반신반인이었는데 영생을 찾아 긴 여정을 걷게 되는데 신들이 하늘로 오르는 우주공항까지는 갔지만 결국 영생을 찾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영화<주피터 어센딩>에서는 아브라삭스 가문이 우주에서 최고 왕족으로 존재하는 제일 큰 이유가 영생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주피터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지구의 소유권을 갖기 위함이다. 지구는 리젠 X, 리셀, 벡타로 불리는 영원불멸의 생명연장의 근원요소인 인간들이 살고 있기에 필요에 따라 그들을 추수 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DNA에서 영원한 물질을 추출하려는 아브라삭스 가문의 영생에 대한 집착과 권력의 의지이다.

아브라삭스 가문의 둘째 칼리크는 주피터를 불러와

서 자신의 어머니 동상에 안내하고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녀는 자신이 1만4천4살이라 소개하고 어머니는 9만1천살 생일을 앞두고 살해 되었다고 말한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자신의 사고를 들어내며 신들처럼 살고 있지만 생명이 무한하지는 않고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친의 지구연대기에서도 신들이 무한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들도 죽임을 당하기도하고 부활하지는 못한다. 물론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명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들의 행성 1년이 지구의 3,600년과 같기 때문이다.

영화<주피터 어센딩>에서 큰 사건의 원인들이 영생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시친의 지구연대기 2편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의 관점은 신들이 지구에 내려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인간들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 전쟁의 이면을 보면 신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 중 가장 복잡한 것은 니비루 행성의 적통 계승권자 문제이다. 단순히 장자가 적통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다른 형제와 결혼을 해서 그 가운데 아들을 낳아야 적통 계승자가 된다. 니비루 행성 최고 신 아누(안)의 큰 아들이 엔키인데 적통 계승자가 아니다. 적통 계승자는 엔릴이다. 이 둘은 지구에 내려와 서로 지구의 권력을 잡으려고 끊임없는 암투를 벌인다.

지구에 먼저 내려와 에리두 기지를 설립하고 에단을 건설하고 금광을 개발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지만 늦게 내려온 엔릴에게 에딘과 에리두 기지를 내주고 남아프리카 압주 금광 책임자로 밀려 난다.

엔키는 배다른 여동생 님하르삭과 결혼하여 아들이 적통 계승자가 될 기회를 얻었지만 딸만 낳고 아들을 얻지 못한다. 엔릴은 엔키 아내 님하르삭을 유혹하여 아들을 낳아 적통 계승자를 얻는다. 그들 사이에 큰 앙금이 생기고 엔키계열 신과 엔릴계열 신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에 핵폭탄 발사로 모든 문명이 사라진다. 성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유황 불이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엔릴의 아들 적통 승계권자 님우르타는 전쟁 영웅으

로 등극한다. 그가 영웅으로 등극한 사건은 니비루 최고의 신 아누에게 권좌에서 밀려난 알랄루의 손자인 안주(Anzu)라는 신이 엔릴이 장악하고 있는 비행통제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운명의 서판’[17]과 엔릴의 ‘빛의 무기’까지 가져가 버렸다.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엔릴의 아들 닌우르타가 우주선을 타고 공중전에서 날개가 거의 달을 위치까지 접근하여 미사일인 틸루(Tillu)를 발사해 안주를 제압하고 니비루와 지구기지에 안정을 가져온 사건이다.

영화<주피터 어센딩>에서는 아브라삭스 막내 타이티스가 주피터와 결혼하여 지구의 상속권을 획득한 후 주피터를 죽여서 자기의 자산으로 하려는 음모를 진행한다. 주피터가 케인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아는 타이티스는 자신의 말은 믿지 않으면서 자신이 고용한 자의 말은 믿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낸다. 결국 케인의 생명을 담보로 결혼 승낙을 받아 내지만 결혼식장에 케인이 난입하면서 타이티스의 거짓말이 드러난다. 위쇼스키 남매들은 시친이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에서 신들이 적통 후계자 문제로 결혼과 유혹을 일삼는 장면을 차용하여 지구의 소유권을 얻어 형 발렘보다 위에 서보려는 타이티스의 권력 욕심을 치환하여 표현하였다고 보여 진다. 타이티스는 대중을 우롱하는 달콤한 거짓말은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필요악이라고 역설한다. 이 거짓말의 근원을 찾아보면 인류를 대홍수로 멸하려는 엔릴에 맞서 엔키는 인류를 살려 내려고 신들과의 맹세를 우회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지우수드라(ZIU.SUD.RA)¹²가 인류의 구원을 기도하고 간청하기 위해 신전을 찾아오자 엔키는 갈대 장막 뒤에서 속삭이며 비밀을 전달한다[18].

케인이 주피터를 타이티스에게 데려가려고 할 때 발렘의 키퍼들이 지구에 접근하는 모든 우주선을 파괴하고 주피터를 죽이려 할 때 전투 씬은 고대 닌우르타가 안주를 제압하는 장면과 유사하다. 케인은 키퍼의 소형 우주선을 빼앗아 전투에 임하는데 마지막 우주선을 파괴하는 장면에서 정면으로 우주선을 몰아 적의 우주선과 충돌한 후 주피터를 데리고 탈출하는 장면이 닌우르타가 우주선을 날개가 거의 달을 위치까지 접근하여 미

사일을 발사했다는 사건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영화<주피터 어센딩>에서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이지스 함장은 세 번의 전투에 참여해 2백만 명의 병사를 잃었다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 전투는 케인이 주피터를 구하기 위해 포털이 닫혀진 목성으로 소형우주선을 몰고 들어가는 장면이다. 케인이 목숨을 걸고 목성에 진입하여 우주선이 발렘의 도시에 충돌하고 그 여파로 도시가 파괴된다. 발렘이 주피터 가족 목숨을 담보로 지구 소유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하려는 순간, 주피터는 포기 각서를 바닥에 뺨치고 서명을 거부한다. 케인이 타고 온 우주선 폭발 여파로 목성의 발렘의 왕가는 중력선체가 파괴되어서 모든 도시가 연쇄폭발 한다. 이 사건으로 우주 최고의 왕가 아브라삭스 발렘의 왕궁과 모든 자산이 사라진다. 발렘은 우주 최고의 왕가이고 지구를 소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주 전체에 군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는 모든 인간사회는 필연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며, 반드시 누군가는 절대 다수의 대중 위에 군림 할 수밖에 없다고 주피터에게 말한다. 그의 삶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데 있고, 우주 전체에 군림하는데 있다. 이런 물질의 욕심이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초래 한다.

엔키의 아들 마르둑 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수메르에 떨어진 핵폭탄 한 방으로 찬란하게 꽃피운 문명과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던 우주 공항과 통제실, 그리고 착륙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과 유사하다.

닌우르타(이슈) 핵공격 한 방으로 우주 공항이 사라졌고, 통제실이 숨어 있던 산이 무너졌고, 그 활주로로 쓰였던 평원이 사라졌다[19]. 네르갈(에르라)은 시나이 반도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카나안 도시(소돔과 고모라)들로 가서 그곳들을 파괴했다[20]. 이 내용은 아브라삭스 가문의 몰락을 신들의 몰락에서 위쇼스키 남매가 차용했다고 보여 진다.

이상은 영화<주피터 어센딩>에서 영화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와 주요 사건을 다루었고 아이콘적인사건을 다뤄보기로 하자.

첫째는 영원한 젊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브라삭스 가문의 사업인 리젠X, 리셀, 넥타는 지구에 내려온 신들이 마셨던 생명나무 즙에서 착안 한 듯 보여 진다. 생

12 구약성서에서 대홍수 때 살아남았다고 하는 '노아'의 수메르 표기.

명나무 좁은 지구에 내려온 신들이 짧은 지구의 공전주기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에 대비한 음료이다.

두 번째는 엔키와 닌하르삭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었고 유인원들의 난자에 아눈나키들의 정자를 수정하여 유인원 자궁에 착상 시켰으나 태어난 아기가 앞모습은 유인원 모습이고 뒷모습이 아눈나키 모습이어서, 다시 수정하여 아눈나키 자궁에 착상 시켜 비로소 인간 모습이 탄생하였다. 이 내용에서 유전자 공학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짐에 착안하여 늑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라이칸탄트, 공룡의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츠칼리칸, 그리고 많은 일꾼과 기계를 다루는 인물들이 유전자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체로 보여 진다. 특히 키퍼(Keeper)는 성서에 나오는 와쳐((Watcher), 감시자를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인간들과 생명체의 노동력 착취를 들 수 있다. 고대 신들은 금을 채굴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자 인간들을 만들어 대신 노동을 하게 했다. 남아프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메소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도 많은 인간들이 신들을 위하여 일했음이 확인되었다. 영화에서는 곳곳마다 인간과 생명체들이 아브라삭스 가문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이 아이콘적 사건들은 날개로 나열했지만 영화 속에서는 서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표현되어 졌다. 이상으로 <슈피터 어센딩>에 나타난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을 영화를 통하여 분석하여 워쇼스키 남매들의 철학적 기초가 시친의 사상과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세간의 혹평에 관계없이 영화 <슈피터 어센딩>은 재평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워쇼스키 남매는 영화 평단과 관객들에게 버림받았다. 영화가 관객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워쇼스키 남매는 다소 관객을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경향이 있다. 영화 <슈피터 어센딩>은 기존의 영화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아닌 전혀 새

로운 아이디어를 장착했다. 그것은 제카리아 시친의 사상이다. 종교계나 학계에서는 시친을 정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주장은 종교계에 강한 반발을 일으켰으나 종교계에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학계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진화론의 학설을 시친이 종잇장처럼 구겨버렸다. 학계는 시친의 주장을 유사학, 유사학문으로 치부하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응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학설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과거에 분명히 존재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에는 몰랐던 것이 조금씩 밝혀지자 연구에 활기를 띠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존하는 유적들의 존재원인을 현대 과학으로 밝혀지 못하면 모든 것을 미스터리로 치부한다. 우리 지구 행성에는 현재 과학으로는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키가 8M가 넘는 거인의 유골, 볼리비아 푸마쿤푸,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폰페이 섬 남동부에 있는 고대 인공 섬 난 마돌, 중동에 있는 전설의 다마스쿠스 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피라미드, 그 중 남극에 있는 것과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는 발굴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모든 유적과 기록을 바라보는 시친이 기존의 지구과학기술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대에 근접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미스터리로 치부하고 기존 과학자들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커다란 상상질리를 용암이 분출하여 급작스럽게 식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기존 과학자는 주장 한다. 용암을 수없이 봐 왔어도 육각형 모양으로 일정하게 식는 용암은 왜 더 이상 지구에서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가? 현재 과학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워쇼스키 남매는 SF영화를 통하여 시친의 외계지적설계론 주장에 동조하여 자신들 영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동안의 SF영화는 꿈과 환상의 세계 그 자체였다면 <슈피터 어센딩>은 신화가 역사로 인식되고 상상과 몽환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철학적 사고를 간직한 영화이다.

평론가 조재희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슈피터 어센딩>은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고 전 세계 SF영화 장르에 전혀 다른 새로운 신개념을 선사한 수작이라고 사료된다. 그동안 막연하게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우주를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 졌었다면 <슈피터 어센딩>은 고대의 기록에 근거한 태양계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신들에 대한 생각 또한 아무런 의심 없이 전지전능한 신들이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간섭하고 보호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준해서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고 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왜 신들로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사료된다. 현재의 과학을 가지고 그대로 날아가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시친이 밝혀주었고 워쇼스키 남매가 그 철학적 근거 아래 영화화 했다. 워쇼스키 자매의 철학적 개념이 깊어지는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배상준, 정수완, “<그래비티> - 사실주의적 SF영화의 형식주의적 해석,” 씨네포럼26, p.9, 2017.
- [2] 최영진, “미국적 신화의 관점에서 본 SF영화의 관객서 - <스타워즈>와 <심슨가족>의 “우주비행사 호머”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제54권, 제4호, p.461, 2008.
- [3] 황혜진, 이승환, “SF영화<매트릭스>에 나타나 문화적 혼성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5권, 제10호, p.34, 2005.
- [4] 제카리아 시친 지음, 이재황 옮김, *시간이 멈추는 날*, 도서출판AK, p.439, 2011.
- [5] 제카리아 시친 지음, 이근영 옮김,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도서출판AK, p.255, 2009.
- [6] 제카리아 시친 지음, 이근영 옮김,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도서출판AK, p.6, 2009.
- [7]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C%B9%B4%EB%A6%AC%EC%95%84_%EC%8B%9C%EC%B9%9C, 2018.07.04.

- [8] 모세, *창세기 28장 12절*, 대한성서공회, p.32, 1993.
- [9] 모세, *창세기 28장 12절*, 대한성서공회, p.19, 1993.
- [10] 제카리아 시친 지음, 이재황 옮김,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 도서출판AK, p.497, 2009.
- [11] 영화 <슈피터 어센딩> DVD 엔디 워쇼스키, 라나 워쇼스키 감독, 서울: 워너브러더스엔터테인먼트, 2015.
- [12] <https://blog.naver.com/geocons/40106966529>
- [13] http://www.ezday.co.kr/bbs/view_board.html?q_sq_board=6566355
- [14] 제카리아 시친,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도서출판AK, p.58, 2009.
- [15] 제카리아 시친,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도서출판AK, p.63, 2009.
- [16] 제카리아 시친,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도서출판AK, p.59, 2009.
- [17] 제카리아 시친,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 도서출판AK, p.162, 2009.
- [18] 제카리아 시친,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도서출판AK, p.194, 2009.
- [19] 제카리아 시친,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 도서출판AK, p.522, 2009.
- [20] 제카리아 시친,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 도서출판AK, p.523, 2009.

저 자 소 개

김 성 훈(Seong-Hoon Kim)

종신회원



- 1987년 8월 :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사)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 석사)
- 1998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연출, 광고제작, 3D, 이벤트